

석사학위논문

루터와 칼빈의 성서 이해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회사전공

임 종 수

2004년 12월

# 루터와 칼빈의 성서 이해

지도교수 김 기 련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회사 전공

임 종 수



# 목 차

I. 서 론	1
II.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서관과 전통교리	3
1. 성서관	3
2. 전통교리	5
III. 루터의 삶과 성서관	14
1. 교육 과정	14
2. 영적 투쟁	16
3. 성서 이해	22
4. 율법과 복음	25
5. 성서 해석	28
6. 성서의 정경성	30
IV. 칼빈의 삶과 성서관	32
1. 교육 과정	32
2. 영적 투쟁	34
3. 성서 이해	40
4. 성서의 영감	43
5. 성서의 권위	45
6. 성령의 내적 증거	47
V. 결 론	50
1. 요약	50
2. 제 언	53
참고 문헌	55

## I. 서 론

“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11)

홍수 때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다는 말이 있다. 책, 테이프,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쉽고도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가고 썩어가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다, 뉴 에이지 시대다 하여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타락하여가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의 요즈음 모습은 어떤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령이 이 나라를 떠났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관망과 분석과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자. 순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성 안나에 대한 숭배, 성자유골의 수집 등이 극에 달했다. 면죄부 판매가 격증했으며, 교황의 분예 넘치는 호화생활, 성직매매, 친족등용, 성직겸직, 부재성직자, 축첩등과 같이 도덕적 파탄이 있었으며, 교구 성직자의 교육상태는 엉망이었고, 지독하게 가난하였으며 도덕수준은 엉망이었다. 부패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치유책이 없이 상처를 완전히 들어내는 대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전면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을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욱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에 적용하므로 써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친 후에 수술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보완 발전시킬 것이다. 현 상황이 전면부정의 종교개혁시대

는 아닐지라도 예방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만약 때를 놓치게 되면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육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결코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해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은 것은 희망적이다. 비판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문제를 보완 발전 해결하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성서말씀에서 모든 힘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도 성서 말씀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영의 구원이 믿음으로 보다는 행위의 공적과 금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의 대과업을 이룬 개혁자들이 어떤 준비과정을 통하여 성서를 연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아봄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신을 되찾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Ⅱ.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서관과 전통교리

### 1. 성서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서를 중요시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성서보다 전통과 교황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수 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면들을 더 강조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곧 악으로의 출발인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선 그리스도보다는 인간 베드로의 후계임을 더욱 주장하였다. 베드로를 앞에 내세움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황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14~15권의 외경서, 희랍과 라틴 교부들의 많은 저작들과, 엄청난 양의 교회회의 선언들과 교령들로 이루어지는 전통을 이용하였다. 성서를 통하여서는 약점이 들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서보다는 전통을 내세워 그 집단의 신념과 사상 실천과 규칙을 이루어 나아가려 하였다.

모든 전통이 다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성서와 일치되고 진리위에 세워져 있다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카톨릭에서 성서와 일치되지 않고 진리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성서보다 더한 권위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한번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빛나가게 되며 결국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된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통과 교회에 의해 말해진 해석에 의하여 족쇄가 채워질 때 그것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중단하고 교구민들의 조절을 위하여 성직자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된다.<sup>1)</sup> 로마교회는 성서를 전통의 빛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공언 하면서 사실상 전통을 성서 위에 두었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중요시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교회 자체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었다.

---

1) 로레인 보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이송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15.

이와 같이 결국은 성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근거로 기록된 말씀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 즉 구전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이 구전 전통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지만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세대를 걸쳐서 구두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은 교회회의들의 선언들과 교령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다고 했다. 또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인 교황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 성서에 첨부해야 할 것들을 재정할 수 있다고 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성서에 호소하여 로마교회의 오류들을 격렬히 비난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성서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저술들을 이용하였다. 로마교회가 자신들을 유일한 참된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성서에서는 근거보다 부정적인 면을 찾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성서는 교황 혹은 하나의 제도로서 교황제도에 관하여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또한 예배시 성상이나 우상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통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지탱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통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전통을 포기한다면 전 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로인해 대부분의 교리들과 행위들이 어떤 근거에도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구약의 종결과 그리스도 이전에 씌어진 외경을 첨가함으로써 구약과 유대인의 삶과 사상에 더 큰 우선권을 주었다. 결국 모든 부분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비 성서적인 점을 부각시킴으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쓰게 되었다.

4세기가 끝날 무렵 감독 다마스스(Damasus)에 의하여 제롬(Jerome)은 표준 라틴어 성서번역을 위임받았다. 목적은 성서를 평민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교황들에 의해서 성도들로부터 심지어는 사제들로부터 회수되었다. 이것이 라틴 빌게이트 성서 역본이다.

처음에 제롬은 외경은 구약성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으나 두 명의 감독 친구들에게 설득을 당해 외경 역본을 만들었다. 이것이 나중에 빌게이트와 섞여지게 되었고 다른 외경서들을 덧붙이는 것을 격려하는데 사용되었다.<sup>2)</sup>

---

2) 위의 책, 122.



기존 성서의 본질은 왜곡된 채 비성서적, 인간적인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져갔다.

이스라엘은 영감된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짓선지자들의 편안하고 아첨하는 가르침들을 좋아했고 그로 인해 얼마 안 있어 선지자들의 참된 가르침에 전통을 보태어서 발전시켰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저술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교황들과 감독들도 인간이 만든 그들의 교회의 전통들 속에서 그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에 이끌리어, 그리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발견해냈다.<sup>3)</sup> 이렇듯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전통들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서가 자신들의 해석학적 주석 없이 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를 금서목록으로 정했다. 이유는 성서가 저속된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에게 허용 된다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람들의 무모함이 성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많은 악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민들로 하여금 성서로부터 눈멀게 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향락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비 성서적 교리가 생기게 되었다. 인간의 영적 무능과 갱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를 받기위해 자신을 준비해야하는 합력중생론을 주장한다.<sup>4)</sup> 이와 같이 인간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 2. 전통교리

성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증거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육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육적, 세상적인 행위를 더욱 요구하였다.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성서에서 벗어난 행위, 성서를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로마교회가 자신들

---

3) 위의 책, 131.

4) 김수학, 「개혁과 역사신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6), 116.

을 변호하고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이런 행위적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 체계화되면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성서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통이란 예수님 자신이 주신 교훈, 그의 생활양식, 그의 인물과 능력을 직접 보고 보냄 받은 사도들의 증거, 그들이 전해준 예배와 성례전의 의식적 전통, 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설교와 모범 등 성직제도, 성례전, 교리 기타 일체의 교회생활에 관한 것이 교회법 형식으로 법률화된 것을 말한다.<sup>5)</sup>

이러한 전통은 본질적 문제의 왜곡이 있게 되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현혹시켜 틀 속에 가두어 놓음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선포의 설교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식과 예전을 중요시 하였다.

특히 7성례가 예배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sup>6)</sup> 또한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라틴어를 사용하여 예배에 진정과 신령으로 동참하기 보다는 형식에 끌려가며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도록 하였다. 이런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형식, 또는 성령의 그릇, 의를 부여하는 도구,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겼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볼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은 믿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으로 끌어 내렸다.

7성례의 7이란 숫자도 당시에 7이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에서 기인했다. 예를 들면 7가지 죽을 죄 (자만, 탐욕, 사치, 질투, 폭식, 분노, 절망), 7가지 기본 덕목 (지혜, 용기, 자제, 정의, 믿음, 소망, 사랑), 7가지의 자비로운 일 (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자를 돌아보며, 집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포로된 자를 놓아 주고, 죽은 자를 묻어 주는 것), 그리고 7성례 (세례, 견신, 성체미사, 고해, 임직, 혼례, 종유성사)등이다.<sup>7)</sup>

---

5) 위의 책, 114.

6) 김기련, 「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1), 32.

7성례와 여러 전통을 살펴봄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어 미신적인 상태까지 타락시켰음을 알게 된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리어 복음에 저해하는 요소까지 사용하여 평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음을 알게 된다.

## 1) 7성례

가) 세례(Baptism) - 세례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맑은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아기들에게 일생에 단 한번만 베풀어진다. 세례는 원죄와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면죄와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이 과기 된다고 한다. 그리고 죄의 충동을 약화시킨다.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불멸의 인호가 붙게 된다. 또한 성례전을 받을 권리를 준다. 구원을 얻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구원의 배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아가 세례 받는 장면은 성서에 기록이 한번도 없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 들일만한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에게 해당된다.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거나 혹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태어나자마자 지체 없이 교회의 울타리에 가두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견신(Confirmation) - 유아세례를 받을 당시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16~18세)에 다시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 성령과 은혜를 얻게 하는 예전이다. 먼저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향유로써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다.<sup>8)</sup> 주교에 의해 견신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정식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견신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았어도 불완전한 기독교인이며,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신성사가 필요 없지만 로마

---

7) R. H. Bainton, 「정통교회사」, 김인철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138-142.

8) 송락원, 「교회사」, (서울: 이견사, 1981), 295.

카톨릭 교회는 견진성사를 세례의 보충, 완성, 성령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여 시행한다. 이 땅의 인간에 의해서는 성령을 부여 받을 수 없는데도 성령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신도들을 교회에 보다 깊숙이 끌어 들이고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성체미사(Mass ; Missa) - 성체미사는 합벽적인 사제에 의해 정해진 제단과 성별된 천위에서만 거행되어질 수 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순수한 포도주가 물과 함께 섞여 사용된다.<sup>9)</sup>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의 제정어가 끝남과 동시에 떡과 포도주는 표면상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는다. 이 같은 성체미사로 그리스도의 고난 및 죽음에 대한 기억, 피에 대한 위로, 유혹에 대한 방어,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내재하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성체에 임하기 전에 죄의 고백, 금식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므로 모독함이 될까 하여 떡만 주는 법을 시행하였다.

성서는 대속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완성된 일회적 행위임을 계시해준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매일 갱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무시했다.

이러한 희생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 의식을 통하여 기적의 매개물에 의한 감정적인 황홀경 속으로 몰아넣고, 또한 미사에 라틴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사제를 신비의 모습으로 만들어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재정적인 수입을 끌어 들이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많은 돈이 있으면 장엄한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적은 돈이 있으면 평미사를 드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격언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수 없는데 이들은 돈의 액수의 크기에 의해 미사를 팔았다.

---

9) 정수영, 「새 교회사」 (서울: 규장문화사, 1991), 260.

라) 고해(Penence) - 세례로 원죄를 사유 받았으나 세례 받은 후의 범죄는 반드시 참회해야 했다.<sup>10)</sup> 고해는 죄의 보상이라는 사상에서 나왔다. 참회는 네 단계에 의해 행해졌다. 곧 통회, 고백, 보상 그리고 사면이다. 사제가 회중을 대표하여 벌을 부과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기도 하였다.

중세에서는 죄와 의를 어떤 상태라기보다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채권과 부채의 면에서 보았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사제 앞에 고백해야 했다. 죄의 보상으로서는 성지순례, 교황이 주도하는 각종 십자군 종사, 구제행위, 헌금, 금식, 고행 등이었고 이를 대가로 죄를 사면해 주었다. 대죄는 고해로 소죄가 되고 소죄는 속량함으로 인해 사함을 얻는다고 보았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용서 받게 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를 고행으로 대치시켰다. 그 결과 이 고해 제도는 성직자단의 이익에 크게 부합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를 견고케 했다.

사제들은 왕에서 비천한 농부까지의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되어서 감히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의 사고와 욕망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교회 조직이 번성하고 성공하게 하는 역학을 했다. 신도들이 고백할 때가 되면 벌벌 떨고, 기진해 하고, 울기까지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었다.

마) 임직(Ordination) - 성직 안수를 말한다. 서임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만이 서품을 줄 수 있다. 주교는 총 대주교구, 대교구의 주교들에 의해 선출된 뒤 다른 세 명의 주교들에 의해 신원을 보장 받아야 서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서품 받은 사제는 성직의 직분들, 즉 성유축사, 설교, 고해자들의 사면을 할 수 있다.

바) 혼례(Matrimony) - 로마교회는 결혼을 신성시 하고 이혼을 금지하였다. 결혼을 성사(聖事)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관장하고 사제만이 혼례성사를 집행

---

10) 김기련, 「종교개혁사」, 35.

하였다. 사제가 집례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루터는 결혼을 성례로 보지 않고 개인적이며 세속적인 일로 여겼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에베소서 5:32을 결혼은 하나의 커다란 성례라고 잘못 번역함에서 유래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다. 결혼을 그들의 권한 아래 둠으로 인간관계를 교회가 통제하려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사) 중유성사(Extreme Unction) - 12세기 이후 임종준비로 이 의식이 행해졌다. 사제가 병으로 인해 임종에 가까운 사람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얼굴(눈, 코, 입, 귀)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봉헌된 기름으로 바르고 기도하였다.<sup>11)</sup> 이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제들이 유언을 대서해 주었다. 사제 앞에서 하지 않은 유언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 임종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종교의 속박에 가두었다. 또한 마지막 의식에서도 구원의 확신보다 연옥에 간다고 했다. 친지가 풍족하게 돈을 내면 고통이 단축된다고 하여 죽은 후에는 산자에게 짐을 지어주었다.

## 2) 성자숭배

성자숭배의 풍습은 고대교회에서 순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상으로 부터 일어났고 중세에 더욱 성행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숭배의 정도를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최고의 숭배, 성자에 대해서는 숭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악마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자숭배가 더욱 성행했다.

성서에서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순교 당한 자를 성인이라 한다. 죽은 자를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기를 시도하는 강신술의 형태가 된다. 이는 이교주의에서 개종한 자들이 만족스러운 신앙의 대상을 찾지 못하자 성자를 만들어 내게 되

---

11) 김기런, 「종교개혁사」, 36.

었다. 신도들은 성자를 친구나 보호자로 여기고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희망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다.

### 3) 성모숭배

성자의 최상위를 점하는 분은 신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이다. 로마교회에서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확정하여 섬겼다. 각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위해 측당을 설치하여 마리아를 칭송하고 숭배하였다. 로마교회 교도들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듣는다고 믿었다. 각종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성모 마리아 동정녀 봉헌 축일(11월21일), ②성모 마리아 탄생제(9월8일), ③성모 마리아 정혼 축일(1월23일), ④마리아 성심 축일(8월22일), ⑤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제(9월9일)<sup>12)</sup>등이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어머니(신모)라는 명칭이 마리아 숭배로 발전하였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사도들의 여왕, 하늘의 여왕, 천사들의 여왕, 낙원의 문, 하늘의 문, 우리의 생명, 은혜의 어머니, 초자연적 능력을 묘사하는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이름만 보아도 숭배의 정도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지위까지 강탈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구유 또는 그의 모친의 팔 가운데 안겨 있는 무력한 아이로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위를 약화 시켰다.

### 4) 성물 숭배

경건한 사람들은 성물이 수집되어 보관된 곳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예배드렸다. 또 이상한 물건을 조형해 만든 성상들을 앞에 걸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예배드렸다. 반대와 찬성의 격론 속에서도 성상예배는 하나의 완전한 전통으로 굳어졌다. 예배당 안에는 각종 현란한 그림과 조각 등이 설치되었고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있었다.

---

12) 정수영, 「새 교회사」, 254.

## 5) 선행의 공덕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의 정신을 표하기 위해 선행을 행한 사람은 그 만큼 죄 사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교황청이 선행에 따라 죄 사함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십자군 종사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면해주는 것, 교회수리에 금전을 낸 자를 면죄해주는 것, 서임권 투쟁시 교황이 황제의 반대편 사람들을 사죄하는 것,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 일 등이다.

이러한 공덕에 의한 속량의 효력이 산자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죽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죄의 사면을 위해 통회와 고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일종의 형식이 되었고 다만 헌금 혹은 선행이라야 죄 사함을 얻는다고 믿게 만들었다.

## 6) 공로의 보화

그리스도와 성직자들이 축적해 놓은 공덕에 힘입어 교황은 사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희생과 공로는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고 쌓인 공로들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면죄부 판매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 면죄부는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되었다. 이는 교회의 수지맞는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면죄부를 죄인에게 판 자들이 더 큰 죄인이었다는 말이 있음은 돈벌이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 7) 미신 숭배

그 당시 종교 상태는 미신 숭배와 악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광산에 은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홀리거나, 기형아 출산, 질병 등을 악마의 공격으로 생각하였다. 로마 교회는 악마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성자숭배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광부들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가 도와준다고 믿었다. 위험과 질병에서는 구난성인(救難聖人)이 도와주며, 준비적(準秘蹟), 봉헌된 초, 묵주, 기도, 성수, 성유, 성자의 유골, 유품 따위가 악마의 계교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었다.



## 8) 연옥 사상

중세 교회는 연옥이란 의인이 누리는 영복의 천국과 악인이 받는 영벌의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처소로 죄의 보상을 다 치루기까지 죽은 영혼이 괴로움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는 곳이라고 가르쳤다. 이 연옥은 천국에 갈만큼 선하지 못하거나 지옥에 갈만큼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였다.<sup>13)</sup>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고 세상에 있는 독실한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었다.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는 연옥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다.<sup>14)</sup> 로마 교회는 미사 희생제나 기도, 금식, 구제 등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의 믿음보다는 부와 지위 등 특별한 위치와 같은 외부적 요건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이 죽은 자와 계속 관계할 수 있고 선악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종교의 공통적인 요소였다.

## 9) 교황 무오설

로마 교회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로 신성하고 직무 수행시 하등의 실수나 잘못이 없다고 선언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교황에게 복종해야만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보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였다. 행함을 강조하면서 형식과 의식이 중요시 되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풍속과 미신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구원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여 교회의 틀 속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속박하고 여러방법을 통하여 백성을 통제하고 강탈하였음을 보았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살아 있기에 영의 구원에 대한 짝은 피어나고 있었다. 악을 이긴 선은 더욱 아름답기에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비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결국은 배척당하게 되었다.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릇된 신앙, 미신적 행위, 자포자기의 삶에서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었다. 이는 성서 안에 돌아옴을 의미하고 그 성서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

13) R. H. Bainton, 「정통교회사」, 김인철역, 140.

14) 김기련, 「종교개혁사」, 40.

### III. 루터의 삶과 성서관

#### 1. 교육 과정

루터의 조상들은 대대로 튜링겐 서쪽 피라(Moehra)에서 살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던 농가였다. 그러나 가족이 많아 생활은 고단하였다. 루터의 아버지는 피라에서 성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활의 길을 개척하기로 했다.<sup>15)</sup> 결혼 후 생활 터를 피라에서 동북쪽으로 백마일쯤 떨어진 아이슬레벤(Eisleben)으로 정하였다. 루터 아버지는 그곳 광산에서 노동일을 하였다. 그때 루터가 출생하였다(1483년). 루터 출생 다음 해에 루터 일가는 아이슬레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만스펠트로 이사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뿔나무를 구하러 산으로 가야하는 구차한 살림이었다. 그러나 루터 아버지의 굳은 의지와 성실성으로 루터가 만스펠트(Mansfeld)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무렵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루터의 아버지는 만스펠트시의 한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고 1491년에는 4명의 마을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그것은 주민의 존경과 경제적 부요를 의미했다.<sup>16)</sup> 1502년부터는 광산을 차용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이러한 동안 루터는 부모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공부에 게으르거나 도덕적 잘못이 있을 때는 용서 없는 초달을 맞았고 이러한 교육이 후년 루터로 하여금 정신적 격동기를 넉넉히 이겨 나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만스펠트 초등학교는 시민의 자제들을 법률가와 성직자가 되게 하기 위해 대학에 보내는 준비 학교였다. 이 학교에서는 그 당시의 학교들이 다 그렇듯이 엄벌주의 일변도의 교육을 했다. 피나는 채찍질이 훈육의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다.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나꾸어 채며 손이나 책으로 뺨을 후려갈기는 것이 보

---

15) 김성식, 「루터」 (서울: 지문각, 1969), 75.

16) 김기련, 「종교개혁사」, 90.

통이었다. 냉한을 참아야 되고 금욕과 인내와 순종을 최대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반항의식을 말살시키고 유순한 인간을 만드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sup>17)</sup> 이렇듯 세밀한 부분까지 개혁자로 다듬어 졌다.

루터는 만스펠트 초등학교에서 문법, 논리, 수사학과 라틴어를 배웠다. 또 문법과 더불어 그것의 응용을 위하여 수사학의 일부인 서간 작성법도 배웠다. 그밖에 음악도 배워 교회에서 찬송가도 불렀고 뒤에 루터 자신이 작곡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초등교육을 마친 루터는 좀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만스펠트의 동북으로 30마일 떨어진 마그테부르크(Magdeburg) 유학의 길을 떠났다. 루터는 1497년 1년간 마그테부르크에 있는 공동형제단이 운영하는 경건학교(Devotio moderna)에 입학하였다.<sup>18)</sup> 형제단은 네덜란드 데벤터라는 곳에 크로테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었는데 반 수도원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단체였다. 형제단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주장하며 소박한 생활과 성서 읽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빈한한 학생들을 모아 기숙케 하면서 그들을 도와 줄뿐만 아니라 어린학생들의 도덕 생활에도 그릇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루터가 형제단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루터의 종교적 성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sup>19)</sup>

그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루터의 종교적 심성이 더욱 굳게 자라났고 그들의 성서 탐독과 경건한 마음의 자세는 어린 루터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루터는 마그테부르크에서 성서를 처음 읽게 되었고, 또 성가도 많이 배우고 종교적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종교개혁가로 준비되어졌다.

다음에는 아이제나하(Eisenach)로 옮겼는데 이 아이제나하에서의 생활이 루터의 젊은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sup>20)</sup>고 회상한다. 거기서 루터는 라틴어를 완전히 습득하였다. 깊은 통찰력과 표현에 능란한 재능을 가졌던 루터는 웅변, 시문, 수사학에 있어서 발군의 성적을 올렸다. 이러한 학문적 준비가 그의 중

---

17) 김성식, 「루터」, 80.

18) 김기련, 「종교개혁사」, 92.

19) 김성식, 「루터」, 84.

20) 김기련, 「종교개혁사」, 92.

교적 심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틴어의 완전 습득은 교부들의 저서와 성서를 읽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무기였다. 또한 13세기 초기에 방백에게 시집은 성 엘리자베스(St. Elizabeth 헝가리)의 경건한 자선사업은 루터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역대 영주들이 종교사업에 진력하였기 때문에 아이제나하의 경제는 침체했었지만 교회와 수도원은 번창하여 각 지방으로부터 성직자 수도사들이 몰려 왔다. 마리아 성당의 대리주교 요한 브라운등 신앙이 돈독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감화를 받았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로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권유로 에르프르트(Erfurt)대학에 들어갔다.<sup>21)</sup> 루터는 여기에서 유명한 자들의 전통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웠다.<sup>22)</sup> 또한 트루베터나 우징겐 교수는 루터의 철학적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루터로 하여금 스콜라철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성과 계시, 지식과 신앙의 차이는 루터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루터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맡은 바 학업에 최선을 다한 결과 1502년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505년 2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 2. 영적 투쟁

루터가 부모의 권유로 법률가로 출세하기 위하여 법률공부를 하던 어느 날 교외에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꺾고 비락이 쳤다. 그는 땅에 넘어지면서 “성 안나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1505년 7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 범한 불륜에 대한 속죄감 때문에, 또는 고향에 갔다 오다 만난 뇌성병력의 충격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영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어거스틴 수도원은 문과 높은 담으로 마치 고도와 같이 바깥세상과 격리된 곳이었고 한번 서약하고 들어가는 날에는 밝은 생의 환희를 영영 맛볼 수

---

21) 위의 책, 93.

22) 벵크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7), 292.

없는 곳이었다.<sup>23)</sup> 이렇듯 루터에게는 영의 구원의 문제가 세상을 포기할 만큼 소중했던 것이다.

이 수도원은 결식수도단의 일파로 13세기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창설되었다. 내적으로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는 동시에 에르프르트대학에 교수를 공급하고 시교회에 설교자를 보내는 영향력이 큰 교단이었다. 어거스틴 수도단은 이미 13세기부터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할 것」을 강조 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성서의 문구를 암송하되 그 장절까지 기억할 정도였다. 수도원생활 초기에 루터는 매우 엄격한 규칙에 따라 매일 일곱 차례씩 기도를 드려야 했다.<sup>24)</sup> 이 수도원에는 요한 스타피우츠(Johann von Staupitz)가 1477년 이 교단의 독일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루터는 그로부터 신앙과 신학연구, 또는 대학에서의 교수와 종교개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제가 된 뒤에 루터는 본격적으로 신학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강렬한 학구심에 불타 휴식을 모르는 연구를 계속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에서 모든 임무를 다하는 한편 신학연구에 몰두하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는 부단히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였다. 어쩌면 그의 학구열은 영적투쟁 즉, 영의 구원의 해답을 얻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어떻게 하면 영의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교회나 수도원이 요구하는 규율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욕을 부정하는 생활을 강행하였지만 마음의 만족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한발 한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중세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연구했지만 중세의 스콜라철학은 영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영의 구원을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 생각했던 루터였으나 수도사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감정과 심지어 어떤 때는 성욕조차 느끼는 매우 불안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sup>25)</sup> 더욱이 성 어거스틴의 예정설을 믿고 있던 루터는 혹시나 자기가 멸망할 예정에 놓

---

23) 김성식, 「루터」, 106.

24) 지원용, 「말틴 루터」, 53.

25) 김성식, 「루터」, 114.

여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남모르게 고민하였다.

루터가 사제가 되고 처음 미사 집전을 할 때 영적 충격을 받았다. 루터가 성단에 나아가 미사의 서구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공포심을 느꼈다. 세속의 군주 앞에 나아가도 뉘뉘 떠는 인간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루터는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겨우 미사의 집전을 끝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였다.

이때의 감정은 의심, 혼란, 고통, 떨림, 공포, 절망, 황량, 자포자기였다. 이러한 느낌, 혹은 피격은 순수한 종교적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상태이다. 성체가 봉행 될 때 루터는 공포에 사로 잡혔었고 그 때의 하나님은 감히 우리러 볼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루터의 고민과 불안은 1514년 가을로 추정되는 그의 「탑의 체험」을 얻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본다. 루터는 교회의 계율을 엄수했다. 그러나 자기의 괴로움과 불안은 더욱 쌓여져갔다. 그가 복음에서 새 종교를 발견할 때까지 그의 하나님은 멀고 먼 거리에 있었다.

1510년 11월에 루터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의 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sup>26)</sup> 루터의 로마 여행의 표면상 이유는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의 계율 엄수와 통합문제에 대해서 바티칸의 의견을 듣고 오는 일이었다. 또한 로마에서 공공 고해를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는 마음이었다. 즉 신앙을 위한 순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기쁨과 기대와 감격어린 마음으로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 로마 여행은 27세 된 한 철학 교수이며 신학도인 루터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주었다.<sup>27)</sup>

루터를 슬프게 한 것은 로마 성직자들의 낭비와 경박과 부도덕이었다. 돈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도들의 청빈과 자기희생을 말살하고 말았다. 그럴지라도 루터에게는 자신의 영의 구원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깊은 신심과 경건한 태도로 로마의 성적(聖蹟)을 계속 순례하였다.

---

26) 김기련, 「종교개혁사」, 100.

27) 지원용, 「말틴 루터」, 57.

그러나 로마에 대한 인상은 조금도 루터의 의심과 불만을 풀어 주지 못한 채 사라졌다.<sup>28)</sup> 최선을 다한 자만이 깨끗이 포기할 수 있듯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행으로부터 벗어나 성서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그로부터 성서를 깊이 파고들므로 새로운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에 이르러서 로마에서의 경험이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루터는 1508년 스타피우츠의 추천으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빗텐베르크 수도원으로 전입했다.<sup>29)</sup> 이곳에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빗텐베르크(Wittenberg)는 제2의 베들레헴과 같은 의의를 갖게끔 되었다. 그는 빗텐베르크에서 어거스틴 수도원의 부원장으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성서 교수로서 크게 활약하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벽지의 이 소도시로 하여금 유명하게 하였고 모든 신사조의 원천이 되게 하였다. 루터의 재능과 모든 정신적 체험은 빗텐베르크대학을 중심으로 이룩되었다.

당시 휴머니즘은 이미 북구에서 종교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원시기독교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했고 성서학자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서적 인문주의 혹은 인문주의적 성서연구가 독일의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루터도 그 길을 걸어 끝내는 자기의 종교개혁 운동의 터전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인문주의는 당대 로마교회와 교리를 비판하여 카톨릭의 총복인 루터를 깨우치기 시작했다. 인문주의자들은 신앙과 학문 연구의 자유를 강조하였고 진노, 공포,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애, 친근,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뮐러가 인문주의가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0)</sup> 그것은 문학상의 인문주의가 헬라 로마의 고전에 향수를 느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이러한 향수나 복귀 또는 복고적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었고 가르쳤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

28) 김성식, 「루터」, 127.

29) 김기련, 「종교개혁사」, 102.

30)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37.

그 복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문주의자들은 성서원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성서의 원어에 접근케 하였다.<sup>31)</sup> 그 결과 1516-7년경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달하게 되었고 1521-2년간에는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까지 하였다. 스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 1512년부터 설교자와 교수를 겸하게 된 루터는 수도원과 뢰텐베르크시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 한편 대학에 출강하는 다망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설교와 강의 준비에 온갖 정열을 다 기울였다. 그로써 뒷날 루터는 명강의자와 명설교자의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설교내용은 성서에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현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서의 내용을 알게 했다. 때로는 성직자들의 물질적 탐욕을 공격하여 자기 직책에 게으르고 세속적 욕망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의 시정을 호소도 하였다.<sup>32)</sup> 설교는 언제나 영적인 말로써 그 끝을 맺었다. 이러한 설교의 과정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자라났고 또 루터 나름의 신학이 형성되어 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루터는 스타우피츠의 뒤를 이어 성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대학에서의 강의는 루터의 수도생활에 기울이던 고행의 정열을 학구에 쏟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수도원에서 얻지 못한 구원의 빛을 대학 강의 준비에서 얻게 되었다.<sup>33)</sup>

그가 시편 강의를 수도원 탑 안에 있는 서재에서 준비하던 중 시편22편에 이르렀을 때 시편의 예언자적 성격을 발견하였다. 이 시편22편이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는가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를 비유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스스로 자신을 버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가? 죄 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이 있는데 죄 없는 그리스도가 왜 죽었나?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과 화해하심을 발견한 것이다.

---

31) 김성식, 「루터」, 139.

32) 위의 책, 139.

33) 위의 책, 146.



여기서 루터는 자비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 은혜의 그리스도, 화해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sup>34)</sup>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의로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되었다. 루터는 바울의 헬라어 「의」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죄하는 신인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의롭다고 선언하는 신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탐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정의의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되었다. 루터에게 그때까지의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례전을 통해서만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례전의 신비주의에 더 의존해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공덕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엄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무한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다.<sup>35)</sup>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2:4, 로마서 1:17)는 뜻이 명백해졌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루터는 사람의 내적 변화가 그 개인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루터는 카톨릭 신학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계시와 이성을 조화시켜 형성되었다는 스콜라 철학은 참된 신앙의 길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sup>36)</sup> 흠으로 지어진 아담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듯이

---

34) 김기련, 「종교개혁사」, 104.

35) 김성식, 「루터」, 152.

36) 위의 책, 155.

루터도 로마 카톨릭에 사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인 성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것이며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독일과 전 유럽을 폭발 시키는 95개조 논박문을 비텐베르크교회의 정문 앞에 내걸므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준비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과정이 아무리 사소하고, 복잡하고,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 할 때만이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

### 3. 성서 이해

오직 성서라는 원리는 루터 이전에는 결코 주창되지 않았다.<sup>37)</sup> 처음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로인해 불리해지는 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확신했고 설득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목상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길 밖에 없다는 신념에 종교적 생명을 담보로 오직 성서란 원리를 내세웠을 것이다. 지금시대에는 별 문제로 생각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당시의 상황은 루터 자신이 소속해 있고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로마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원에 들어간 것과 그곳에서 모든 규율을 지켜가며 모두가 인정할 정도의 열심으로 임했고 로마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이 모든 문제는 영의 구원의 문제이었다. 이 문제가 성서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는 성서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 하게 되고 더욱 성서 연구에 몰두하게 되며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탐의 체험 이후 루터가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하여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듯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내가 전에 증오했던 만큼이나 강렬하게 사랑을 가지고 나의 말로써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

37) 박명곤,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211.

바울이 준 그 말씀이 내게는 진정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sup>38)</sup> 이렇듯 이 탑의 체험에서의 성서 재발견은 루터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재발견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 동안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루터의 신앙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것을 성서를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는 성서는 비록 사람에게 의해 씌어 졌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성서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는 아들에 관한 복음,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회개와 신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빼 놓고는 성서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결국 은총으로만, 오직 신앙으로만, 오직 성서로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이어진다.<sup>39)</sup> 이와 같이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로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도들의 설교는 교회 말씀의 원천이며 규범이었다. 이 사도들의 설교가 구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가 이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서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교사들로부터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성서를 공인할 수 없으며 성서가 자신을 공인한다고 주장한다. 그 공인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위에 있는 심판대가 아니라 단지 그 밑에 있을 뿐이다. 교회가 성서를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서가 교회를 공인한다.<sup>40)</sup>고 루터는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로마 카톨릭이 전통을 앞세우며 교황이 성서해석의 기준이 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루터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상은 항상 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

38) 김동진, 「루터를 생각하며」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6), 47.

39) 김홍기, 「종교개혁사」 (서울: 지와 사랑, 2004), 258.

40)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루터의 신학」, 구영철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115.

러한 악을 항상 생각하는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거나 보존하는 노력은 유익이 없다고 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성서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서는 성령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복음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성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41)</sup> 루터는 전통의 권위 위에서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라고 불리는 과격파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의 계시는 성서의 계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며 싸워나갔다. 즉 성서를 떠난 인간의 판단이나 성서를 떠난 성령의 계시를 경계한 것이다.

성서를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라 볼 때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려는 자들에게 루터는 오직 성서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성서 주석에 관하여도 경계한다. 성서 주석은 성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42)</sup> 이는 성서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서 주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성서의 말씀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의 참고 자료로써 사용해야만 한다. 잘못 사용하면 성서 자체가 사라지고 또 다른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의 생애 초기에는 오리겐의 이중 의미론과 그 후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법들에 근거한 사중 의미론을 따랐다가 후에 포기 한 것을 볼 수 있다.<sup>43)</sup> 우리는 모든 것의 시비를 가려 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성서 안에 온전히 서있으면 그 성서가 기준이 되어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또한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우리를 더욱 넓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성서라는 루터의 외침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서 속에 있다는 뜻일 것이다.

---

41) 김동진, 「루터를 생각하며」, 47.

42) 이성주, 「마르틴 루터 신학」(서울: 성지원, 1988), 40.

43) 김동진, 「루터를 생각하며」, 46.

#### 4. 율법과 복음

루터의 율법과 복음 사이의 중요한 구분은 성서를 그 중심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그의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 그리고 복음으로서, 즉 심판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은총의 말씀으로서 인간들에게 다가온다<sup>44)</sup>고 주장한다. 루터가 이해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으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나타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논제”와 “크리스찬의 자유”에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루터는 율법과 문자는 의에 이르게 못하고 성도를 괴롭게만 한다고 생각한다. 율법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루터는 강조한다. 율법은 오히려 죄악을 더하게만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율법, 즉 가장 거룩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인간을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불연속성에 더 무게를 둔다.

루터는 선을 행하도록 계몽시키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또한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실 때 선행이 가능함을 말한다. 인간의 선행이 매력적이고 선해보여도 은총의 도움이 없이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인간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음을 또한 강조 한다.

율법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복음은 인간을 높여준다. 율법은 두려움과 진노를 일으키고, 복음은 희망과 자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나님답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고 루터는 해석한다.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즉 지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루터는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되어질 때 율법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

44) 박명곤,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216.

특히 인간적 선행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의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의지가 죽은 행위를 미워할 수 없고, 죽은 행위를 사랑하고 죽은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름뿐이며 죄를 범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혜 없는 자유의지는 죄 이외에는 아무 것도 행할 능력이 없다<sup>45)</sup>고 말한다.

크리스천의 자유에서 루터는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임을 강조한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영화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성서에는 이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즉 계명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계명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할 것을 명령하는데 우리는 연약한 고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된다. 그것을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의로움과 평화와 자유와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신약이다<sup>46)</sup>라고 구분하여 설명한다.

루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차이점과 통일성으로 설명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단순히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양 계약을 서로 포함한다고 본다. 구약에서도, 즉 약속들 가운데서도 복음은 알려진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바 그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계약이 더 많이, 신약에서는 복음이 더 많이 발견된다. 구약의 내용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보여주는 것과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이고 신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안에서 죄 사함을 통한 은총과 평화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특히 계약서로서, 신약은 특히 복음으로 불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약이 또한 복음을 내포하는 한, 성서의 두 부분 사이중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구

---

45) 김홍기, 「종교개혁사」, 261.

46) 위의 책, 262.

원이 예언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통일성이 존재한다. 즉 양자는 약속과 성취와의 관계에 있다<sup>47)</sup>라고 말하여 불연속성 속의 연속성을 설명한다.

이는 외형적으로 불연속적이거나 내용면에서 연속성이 있음을 말하려한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루터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율법에서는 빛을 갠이라고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설교하여 강조하며,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만들며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율법을 성취 시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율법은 죽음과 진노와 심판의 계명을 말하지만 복음의 신앙은 죄와 진노와 죽음을 제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평화의 의와 생명을 준다고 해석한다. 구약은 율법과 동일시 될 수 없고, 신약은 복음과 동일시 될 수 없지만 구약에는 복음보다 율법이 더 많이 있고 신약에는 율법보다 복음이 더 많이 있다. 구약에는 숨어 있는 방법으로 복음이 포함되어 있고 신약에는 숨어 있는 방법으로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sup>48)</sup>라고 구분하면서 연관성을 설명한다.

루터는 그들의 관계를 두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첫째, 복음은 구약에 이미 전체 진리로 있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 그 토대를 둔다. 둘째, 그러나 그 전체 진리는 감추어져 있으며 개방되어야하고 그것이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한다.<sup>49)</sup> 이와 같이 구분되어야 하면서도 서로 포함하는 진리를

---

47)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루터의 신학」, 130.

48) 김홍기, 「종교개혁사」, 268.

49)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루터의 신학」, 130.

찾기 위해서는 결국 성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흠으로 창조하시고 그 육신이 죽음으로서 영으로 거듭나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진다.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육신이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주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다. 그가 성서의 모든 부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 5. 성서 해석

루터의 성서 해석은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성령에 의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라고 한다.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전통적 교훈과 상충되어도 말씀의 권위가 앞선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석의 중심에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서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성서의 중심에 놓고 모든 성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강조한다. 한편 성서 해석에서 성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다 성서 주석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0)</sup> 이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나 교황의 해석 없이도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 누구나가 성서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가 자신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성서 자체가 명료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성서가 불명료하여 교회의 교직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루터는 성서의 명료성을 주장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서를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개인들도 열심히 읽다보면 그리스도가 각자의 심령에 거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0) 이성주, 「마르틴루터 신학」, 43.



이와 같이 객관적, 철학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주관적 신앙의 영역으로 그의 해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소를 루터는 그의 성서해석의 중심에 도입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석자의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어느 문장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이 그렇지 못하다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루터는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의 강조는 그의 사상의 주관성의 강조를 표시해 준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루터가 어떤 책을 성서의 중심 위치에 두며 다른 책은 거부하는 그의 선택에서만 아니라 동시에 루터의 전체적인 성서해석의 이론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루터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지 반복하거나 알 수 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활하며 느끼기 위해서이다. 신앙의 인도하심으로 얻은 체험은 언어학을 넘어서서 성서의 영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루터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유로웠다.

루터의 성서번역의 자유로운 의역은 그가 얼마나 성서의 중심적 의미가 명료한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땅 위에 성서처럼 명료하게 쓰여진 책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성서 자체로 성서가 이해된다. 성서가 성서의 해석자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다. 영적인 해석은 자의적이며 역사적인 해석 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교부들이 정확한 해석자라면 루터는 교부들을 이용할 수 있다<sup>51)</sup>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의 도움에 의한 영적해석을 강조한 반면 말씀속의 문자적 의미도 강조한다. 이는 말씀을 떠난 과격파 종교개혁이나 츠비카우 예언자들의 성령 체험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엠저, 츠빙글리, 뮌처, 칼스타트는 문자보다 영을 더욱 강조하는 일원론적 성격이 강하지만 루터에게는 문자와 영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원론적 성격이 강하다.<sup>52)</sup> 루터는 성서의 문자적 외적 해석과 영적 내면적 해석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적 해석으로만 끝나

---

51) 위의 책, 112.

52) 김홍기, 「종교개혁사」, 269.

는 문자와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내면적 영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성서의 유일한 저자는 성령이요 유일한 주석가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즉 성서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견지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외적 문자적 말씀이 내적 영적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 이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 6. 성서의 정경성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장본인으로써 성서를 원어로부터 독일어로 번역할 때 누구보다도 성서의 내용에 깊이 몰입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성서 해석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로 간주했다.<sup>53)</sup> 모든 책들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를 알아내는 타당한 기준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라고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비록 그것이 베드로나 바울이 가르친 것일지라도 사도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유다나 안나스나 빌라도나 헤롯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면 그것이 사도적인 것이라고 했다.<sup>54)</sup> 이러한 맥락에서 루터는 정경과 비정경을 구별했을 가능성이 있다.

루터는 자신의 표준을 가지고 정경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정경에 접근하는 표준은 성서의 내용자체가 복음의 핵심적 내용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죄, 죽음 그리고 지옥을 극복하며 생명과 의와 구원을 제공하는 책이 정경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책들이 복음서들, 요한일서, 바울서신들인데, 이러한 서신들 중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라고 말한다.

---

53) 이성주, 「마르틴루터 신학」, 47.

54) 위의 책, 511.

루터는 이러한 성서는 성서들 가운데서 가장 자격이 풍부한 정경에 예속된 책들이라고 주장한다.<sup>55)</sup> 루터는 야고보에 기록된 내용인 믿음과 행위에 대한 주제를 보면 이 서신은 사도적인 것도 아니고 정경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루터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수난, 부활, 혹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신앙만 가르칠 뿐이라며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루터는 신약성서가 절대적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신약성서의 히브리어,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같은 책은 외경이거나 또는 사도적 권위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책으로 간주했다. 이 4권의 책을 루터판 성서에서 마지막에 두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sup>56)</sup> 이토록 일부의 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의 인간중심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행위에 대하여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

55) 이성주, 「마르틴루터 신학」, 48.

56) W.G.킵멜, 「신약정경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511.

## IV. 칼빈의 삶과 성서관

### 1. 교육 과정

칼빈의 아버지 제랄은 뱃사람 또는 통을 만드는 가문의 아들이었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 출세할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노욘(Noyon)으로 갔다. 그곳에서 칼빈이 태어났다(1509년). 칼빈의 아버지는 두뇌가 예리하고 문필에 소질이 있었으며 비교적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이해심이 깊었다. 또한 근면과 노력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던 칼빈의 아버지는 노욘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한 교구의 서기관과 항게(Hangest)라는 주교의 비서가 되었다. 이 자리는 대대로 그 지방 출신으로서 상류계급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상류계급의 자녀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sup>57)</sup>

칼빈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다.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했으나 그것을 좀처럼 나타내지 않았다. 칼빈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안색이 좋지 않아서 보기에 약하고 신경질적인 것 같았다. 수줍어하는 편이었으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고 이해심이 깊고 빠르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단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그의 얼굴에 화기가 떠오르고, 눈알이 반짝였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칼빈을 더 엄격하게 교육시켰고, 또한 칼빈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독일에서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장을 받고 또한 웜즈(Worms)회의에서 대전투를 치루고 있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열 두 살 되던 해에 노욘 성당의 한 교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

57)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11.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믿었던 칼빈의 아버지는 조금도 돈을 아끼지 않고 칼빈을 파리에 있는 대학에 보냈다. 파리로 떠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에 몰아닥친 흑사병 때문이었다<sup>58)</sup>고도 한다.

1523년 8월에 칼빈은 파리에 있는 말슈대학(College de Marche)에 입학하였다. 그의 이름이 코반에서 칼빈으로 바뀐 것은 이때부터이다.<sup>59)</sup> 이 대학에는 당대에 이름이 높던 라틴어 교수 코디에(Maturin Cordier)가 있었다. 칼빈은 그에게 라틴어를 배웠다. 나중에 칼빈은 코디에에게서 라틴어를 배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였다.<sup>60)</sup>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길지 않았다.

그렇지만 코디에 밑에서 배운 기간이 짧더라도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매우 컸다. 또한 코디에도 이 젊은 신경질적인 시골 소년의 재능에 놀랐으며 수개월 동안에 맺은 사제지간의 정은 두터워서, 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를 초빙했을 때 그는 반갑게 받아들여 85세의 고령에 이르러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칼빈과 같이 일을 했던 것이다.

수개월 후에 칼빈은 친구들과 함께 몽타그(College de Montaigu)대학으로 전학했다. 몽타그대학에서 칼빈은 라틴어를 충분히 습득했다. 본래 이 대학은 중세기 스콜라철학 연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학생 훈련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대학이었다.

당시 피에르 템페트가 교장이었는데 그는 학자로서 명성을 날린 것이 아니라 준엄한 교육 방법으로서 유명했다. 칼빈은 여기서 주로 중세기 스콜라 철학을 탐구했다. 둔스 스코프스, 윌리엄 오캄, 카브리엘 비엘의 저서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라틴어와 중세기 변증법에 통달하게 되었다. 불과 27세의 청년으로서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라틴어에 얼마나 통달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1528년 초에 칼빈은 몽타그대학을 졸업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칼빈

---

58)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48.

59)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93), 12.

60) 이종성, 「칼빈」, 13.

61) 위의 책, 14.

의 아버지는 이때까지는 신학 공부를 시키려 했으나 성직자회와 말썽이 있는 후 법학을 시켰다.<sup>62)</sup>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부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생각에 순순히 응하여 올레안(Orleans)대학에 가서 법률을 배우기 시작했다.

칼빈은 올레안대학에서 루터의 개혁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은 볼마르(Wolmar)에게서 희랍어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칼빈이 올레안대학에 와서 인문주의를 접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 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다.<sup>63)</sup>

1531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노윤에 내려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 왕실대학에서 희랍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했다.<sup>64)</sup>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이 때까지 칼빈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와 공부할 제목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권이 부여되었다. 일평생 법률가로서 생을 보낼 생각은 없었으나 이미 시작한 공부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연구에 게으르지 않은 결과 1532년 2월에 올레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sup>65)</sup> 이와같이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통하여 종교개혁가로서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 2. 영적 투쟁

개혁운동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으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칼빈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그가 관심을 가진 공부의 제목도 종교개혁이 아니라 고전과 중세철학이 아니면 법학이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과 사건이 말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

62) 김기련, 「종교개혁사」, 280.

63) 이양호, 「칼빈:생애와 사상」 (충남: 한국신학연구소, 1997), 16.

64)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13.

65) 이종성, 「칼빈」, 18.

칼빈은 전부터 친교해 오던 코프(Nicolas Cop)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코프는 스위스 바젤의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했으며 프랑스 왕의 시의로 있었다. 친구 코프가 파리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때 코프는 취임사에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한 폭탄선언이었다.<sup>66)</sup> 루터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강조하였다. 프로테스탄트를 옹호하는 선언이요 시위였다.

철학자들과 의사들은 지지했으나 신학자들과 법률가들은 그에게 반대하였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최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거기에는 개혁정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코프를 소환하여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이단자라는 언도를 선포하였다. 칼빈은 코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동조했다는 이유로 함께 추방당하게 되었다.

코프가 바젤로 피난 간 후에도 칼빈은 파리에 머물러 있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포도원 농부로 변장해서 고향인 노른까지 걸어갔다. 이 사건은 칼빈의 생애에 큰 전환기를 가져왔다. 이 때까지는 개혁자로서 활동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반 로마 교회 전선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sup>67)</sup>

새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왕의 탄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서 개혁자로서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까지 학문의 상아탑 속에서 순탄한 성공의 길을 걸어 온 젊은 법학 박사 칼빈은 비로소 격동하는 역사의 화구 속에 알몸으로 던지움을 받게 되었다.

칼빈은 피난의 여장을 전부터 친교해 오던 듀 툴레(Louis du tillet)의 집에서 풀게 되었다. 툴레는 안굴렘 성당의 수석 신부이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칼빈은 툴레의 호의로 피난의 안식처를 얻었고 잠시 중단되었던 연구 생활을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sup>68)</sup>

---

66)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13.

67) 이종성, 「칼빈」, 23.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다. 마침내 칼빈의 친구인 드포르쥬가 박해 당하는 것을 보고 망명을 결심했다. 그는 먼저 듀 툴레를 방문하고 그와 같이 망명의 길을 떠났다. 1535년 1월 스위스 바젤로 갔다. 여기서 그는 코프를 만나게 되었고 잊지 못할 인연을 다시 생각하여 우정을 나누었다. 그동안 본국에서의 소식은 날로 처참한 것이었다. 칼빈은 중상 받은 동료들을 변호해야만 한다고 절감했다.<sup>69)</sup> 그래서 듀 툴레의 집에서 쓰기 시작했던 「기독교 강요」의 탈고를 서둘렀고 1536년 3월에 출판 하게 되었다.

그 후 파리로 돌아가 가사를 정리하고 그곳을 영영 떠나게 되었다. 평온한 가운데서 학구 생활을 할 생각으로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가던 중에 잠깐 제네바에 들리게 되었다. 이때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렐(William Farel)은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제네바를 개혁하는데 도와줄 것을 간청했다.<sup>70)</sup> 칼빈은 자기의 내성적 성격이 그와 같은 사업에 적합지 않다고 사양했으나 파렐의 집요한 설득과 하나님께서 저주 하실 거라는 협박에 두려워 수락하게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할 일은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었다. 처음에는 설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어느 사이에 제네바에서는 파렐과 그의 제자 비레 그리고 칼빈을 세 콤비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 때부터 서로 손을 잡고 제네바시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sup>71)</sup>

1536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로잔느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한 칼빈은 로마 교회의 한 수도자와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칼빈은 그의 실력이 인정되어 바울 서신을 강의하게 되었고 또한 설교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1537년부터 파렐과 칼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개혁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네바 신조」를 발표하고, 「제네바교회 신앙문답서」를 출판하자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과 같은 급격하고 엄격한 개혁보다

---

68)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14.

69)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531.

70) 김기련, 「종교개혁사」, 282.

71) 이종성, 「칼빈」, 28.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방법과 자유신학을 환영하였다. 마침내는 칼빈과 파렐과 그들의 맹인 동역자 코로에게 3일 내로 제네바시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제네바 시민이 칼빈을 위시한 개혁자들을 추방한 원인은 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너무나 엄격하고 비타협적인 개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회가 교회를 지배하려는 데 있었다고 본다.<sup>72)</sup> 즉 교회와 정치의 투쟁에 휘말려든 것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축출당한 후 여섯 달 후에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사태가 이렇게 까지 악화된 데 대하여 자신의 미숙한 점과 태만과 등한과 실수의 결과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실망과 초조와 불안에 싸인 발걸음을 바렐을 향하여 무겁게 옮겨가고 있을 때 칼빈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다.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개혁운동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지하고 연구 생활에만 전념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개혁운동에는 실패를 했다 생각하고 당분간 교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안정도 할겸 연구에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다. 그가 장소를 찾고 있던 중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연구를 원했던 칼빈인지라 초청을 거절하려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보내겠다는 신념으로 허락하였다.<sup>73)</sup>

제네바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이상향이었으나 스트라스부르크는 종교개혁의 안디옥이라고 불리었다. 칼빈은 자유의 이상향인 제네바를 버리고 종교개혁의 안디옥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은 주로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다. 스트라스부르크대학의 신학과 강사로 취임해서 요한복음과 고린도서와 로마서등을 강의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거기서 멜랑톤(Phillipp Melanchton)을 만났다. 또한 시민권도 얻게 되었다. 「기독교 강의」 제2판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했다.

한편 제네바시의 상태는 급변해 갔고, 칼빈의 재 초빙을 소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결정은 제네바독립에 대한 위협과 개혁운동에 대한 반대에 대항할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네바에서 당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

72) 위의 책, 34.

73) 위의 책, 36.

불쾌하여 귀환을 주저하였으나 파렐의 편지를 받고서야 결심하고 제네바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sup>74)</sup>

그가 약 3년간에 걸쳐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독일의 여러 개혁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 멜랑톤은 일생을 통해 친교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또한 워즈, 프랑크 푸르트, 레겐스부르크 같은 곳에서 개최된 여러 교회회의에 참석하여 독일의 개혁운동의 실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일 교회 내의 신자들에 대한 훈련부족, 교직자들의 독립정신 부족, 루터교회 교리의 미개혁된 점, 그리고 루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크게 실망했다. 이런 점을 독일 교직자들에게 지적했을 때 그들은 칼빈을 광열적인 불란서인 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제네바에 돌아가서는 자유, 질서, 훈련의 세 가지 점에 유의하고, 이것으로 제네바시를 훌륭한 복음주의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고투하였다. 그의 표어는 자유와 질서와 훈련이었다. 자유는 이미 획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질서와 훈련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일에 착수했다. 그때 그는 '교회 헌법 규칙'을 초안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 약간의 수정이 있은 후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제네바 교회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sup>75)</sup> 그는 단지 제네바시민의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기도 하고 소책자를 출판하여 복음의 승리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했다.

칼빈이 1556년부터 죽을 때까지 제네바시를 위하여 특히 노력한 일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생활의 질서와 계율을 지킬 것과, ② 제네바시 내에 좋은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과, ③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명실 공히 민족과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sup>76)</sup>

그 당시 제네바에는 종교적으로 자유를 부르짖는 자가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

---

74) 위의 책, 40.

75) 위의 책, 42.

76)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16.

라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는 간음죄에 대하여는 사형에 가하자는 안을 의회에 제의했으나 그것이 부결되고 말았다. 의회에서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에 머리에 특수한 모자를 씌워가지고 거리를 걷게 하고 결국에는 시외로 추방해 버렸다.<sup>77)</sup>

한편 칼빈은 교인들의 훈련에도 많은 정력을 경주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했고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켰다. 이것은 오늘날의 주일학교와 같은 것이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부르게 했다. 이 시편은 찬송가와 같이 곡조에 따라 불렀다.

칼빈이 가졌던 그의 목표중 하나가 교회의 관리 하에 훌륭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었기에, 미래의 씨를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에 신청하여 대학 부지를 구입케하고, 여러 유지들에게 호소하여 기금을 모집하였다. 마침내 소의회에 대학설립을 신청했다. 칼빈은 오늘날 제네바대학의 전신인 Leges Academiae Genevensis를 162명의 학생으로 1559년 6월 2일에 세우게 되었다.<sup>78)</sup>

칼빈은 이 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제네바를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 동시에 개혁사업의 기반을 견고케 했다. 또한 이 아카데미를 거쳐 간 청년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유럽 각국에서 봉기하고 있는 개혁운동의 통일전선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다.<sup>79)</sup>

그는 취리히의 쾰링글리(H.Zwingli)파와 밀접한 교제를 맺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독일의 루터파와도 여러 번 회합을 가지고 서신 연락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혁운동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도 방문했으며 프랑스에 있는 개혁도들에게 여러 번 편지로 격려했다. 그는 프랑스 왕 프랑수와 I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드리는 유명한 서문도 썼다. 에드워드VI세에게는 이사야서와 공동서한 주석을 드렸다. 영국의 대 감독인 크렌머에게도 영국 내의 개혁운동의 진전을 바라는 편지를 썼다. 심지어 폴란드 왕에게 까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의 교

---

77) 이종성, 「칼빈」, 60.

78)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16.

79) 이종성, 「칼빈」, 62.

권 지상주의는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멜랑톤을 통하여 루터에게도 편지를 썼으나 멜랑톤이 그 편지를 루터에게 전해주지 않아 끝내 직접적인 교제를 갖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칼빈은 당시 일류급의 국제적인 인물이고, 또한 독일을 제외한 전 유럽의 개혁운동의 총 지휘관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성서 이해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의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다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인간의 정신 속에 심어져 있어서 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피조물이며 아무도 하나님의 교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의식을 심어 주셨다고 설명한다. 이 의식을 하나님 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코 뿌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sup>80)</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자신에 관한 본유적 혹은 고유적 의식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시 외부적 세계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을 전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과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들을 보여주신 창조주로 본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성(聖)의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시키는데 그 기능을 다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락이 없었다면 자신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통하여 인간은 아마 창조주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

80) 신복운,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36.

그래서 하나의 보다 더 좋은 도움에 의하여 보완되고 명료하게 되었으며, 그 도움은 바로 성서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주신 말씀처럼 받아야 한다<sup>81)</sup>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정정하고 해석해 주며 따라서 일반계시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각종 오류에 솔깃하며, 또한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가 망각에 의하여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반 계시를 통한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하다<sup>82)</sup>고 칼빈은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도움, 즉 성서를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칼빈은 성서의 역할을 안경의 비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 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한다.<sup>83)</sup> 즉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성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

81)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8), 16.

82) 신복운, 「칼빈의 신학사상」, 38.

83)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7.

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서는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특별계시의 문서이다. 계시의 성문화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특별계시, 즉 성문화된 대로의 성서를 치유로서가 아니라 일반계시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진 인간에게 조력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84)</sup>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칼빈은 성서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하나는 구원 받게 하는 수단 이요, 또 하나는 진리의 기준이라 말한다. 인간은 성서를 통해 원죄, 죽음, 심판, 지옥, 사단을 배우게 되며 죄인이 구원 받아 하나님께 가는 길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엔 없음을 알게 된다. 즉 창조, 타락, 구속의 길을 깨닫는 것이라 말한다.

인간은 성서라는 기준을 통하여 신학이 바로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판단하게 되며, 이단과 정통의 구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도움으로 주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sup>85)</sup>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일반계시를 통하여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특별계시를 통하여 그 시대에 알맞은 말씀의 목상이 있어야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에 맞게 풀어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계시에 더하여 특별계시를 주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8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39.

85)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17.

## 4. 성서의 영감

칼빈은 영감이란 성령께서 신구약성서 저자들에게 행사하신 결정적인 감화를 의미하며 이 감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고 진정한 방법으로 선포하며 기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의미에서 성서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의 저술한 성서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별해주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도구로써 하늘로부터 명령되어진 것들을 말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sup>86)</sup>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이와 같이 칼빈은 성서의 저자에 대하여 인간보다는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칼빈은 누구든지 성서에서 도움을 얻고자하면 먼저 성서는 인간의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영감의 결과가 마치 구술에 의한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요소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칼빈은 성서가 인간에 의해 기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확실한 필기자이며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된 증거로 남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성령의 기구, 혹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며 그들의 문체는 성령의 문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임명된 성서저자들은 하나님의 조명에 의하여 그들의 자연적 정신 기능의 활동이 증진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 계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 계시를 더욱 충실히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구인 인간은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sup>87)</sup>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칼빈은 성서가 인간은 도구일 뿐 성령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원본에서 오류 없는 문서라는 라고<sup>88)</sup> 주장한다. 하나님과 성령은 오류가 없으

---

86)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28.

87) 생명의 말씀사, 「칼빈 주석의 정수」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31.

시며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잘 섬기도록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서를 어디서나 인간의 말로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인용했(89),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서는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의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서에 말씀되어진 것은 무엇이나 배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성서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이는 곧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나 경건의 진보에 보탬이 된다고(90) 주장한다.

성령은 성서저자에게 그의 영감의 덕을 부여함으로써 성서의 객관적 권위를 책임지는 분이시다.(91) 그런 마음으로 성서를 접하는 자에게 또한 성령의 덕을 부여하실 것이다. 그 덕에 의해 칼빈은 성서본문을 다루는데도 놀랍도록 자유로웠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감론을 이용하여 로마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칼빈은 성서는 교황제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말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교황이나 로마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교부들은 그릇될 수 있었고 또 종종 그랬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는 달리 성서는 그릇될 수도 없었고 또 그릇된 적도 없었다. 따라서 칼빈은 교부들이나 교회회의 또는 일반전통이 성서와 배치될 때는 성서가 옳고 나머지는

---

88)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41.

89)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40.

90)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30.

91) 박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칼빈의 성서관”, 「교회와 신학」 4집 (1971), 171.



모두 그릇된 것이라 주장한다.

성령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만을 해석해 주고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칼빈은 성령의 직접계시를 의지한다는 구실아래 성서를 무시하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참된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그가 이미 구두로 전달한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그의 주권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서에 복종하도록 성령은 성서를 선택했다.<sup>92)</sup>고 말하므로 성서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다.

## 5. 성서의 권위

칼빈은 성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임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칼빈은 성서는 자연이나 이성보다도 월등한 조력자이지만, 성서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 받아들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성의 힘도 교회의 소리도 성서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 교회의 소리가 불충분한 이유는 교회자체가 성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신탁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약되어 인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육감을 결여하고 있지 않는 한 말씀하신 자를 불신할 만큼 뻔뻔스러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영구히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수단으로 성경책만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성서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서가 하늘로부터 발성된 것임을 확신하는 데서만 그 권위가 생길 수 있다<sup>93)</sup>고 말한다. 하나님이 성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

92) 박선희,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칼빈의 성서관”, 175.

93)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37.

성서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이 성서의 저자라는 것을 성서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 시켜준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서는 하나님의 저작임을 자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서가 자증한다는 말은, 성서가 본래적으로 자체의 신적 기원, 신적 성격 및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성서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과 불가불리의 관계로 연결시킨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며 앞으로도 성령은 계속 그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자증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소생시키는 말씀으로서의 근거를 세운다<sup>94)</sup>고 주장한다.

또한 칼빈은 성서를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며 침해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한다. 칼빈은 그러한 성서가 교회의 일반 동의로 해서 얻어진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고한다. 그들은 과연 성서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안전하며 타락하지 않을 것인가, 한 권의 책만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책은 아닌가. 등의 질문에 대해 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성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서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성서의 확실성은 교회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은 거짓된 책략이다<sup>95)</sup>라고 경고한다. 성서는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축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처럼 성서의 고유한 신적 권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신적 저작권은 우리의 확신에 앞서있는 것이다<sup>96)</sup>라고 로마 교회의 주장에 반박한다.

인간의 감정이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의 표준을 자기감정에다 두려고 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다 두려고 한다. 전자는 무식한 사람들 중에 많고 후자는 유식한 사람들 중에 많다. 칼빈은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기독교의 권위를 성서에 두어야

---

9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46.

95) 사무엘 던,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김득용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4-15.

96)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47.

한다는 것이다.<sup>97)</sup> 이와 같이 성서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확신할 때에만 비로소 성서는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적 저작권 문제는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 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증명은 신앙을 위한 초자연적 기초대신 자연적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헛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불변의 지혜의 기록들은 꾸준히 개인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섭리자께서 사람과 담화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성령의 내적 증거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인식론은 중세교회의 권위적 전통이나 재세례파의 영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성서 진리를 입증하시는 성령의 증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입장을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주석과 설교에서도 설명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한 이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적 구조의 표준이 되었다.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칼빈은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신빙성 문제에 더 비중을 둔다. 칼빈은 하나님이 성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로마교회가 오직 교회만이 성서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sup>98)</sup> 때문에 로마교회와 논쟁상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

칼빈이 참 신앙 혹은 구원하는 신앙을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또는 내부적 행위라고 말하고 성령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우침을 받

---

97)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7), 29.

98)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48.

아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서의 진정한 특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성서에 대한 전적인 묵종을 낳게 하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서는 마음을 향해 자증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이것을 가리켜 성서의 은밀한 증거라고도 한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이론을 훨씬 능가하며, 성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영혼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사역으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영적 자각인데, 이 자각으로 인해서 신적 저작임을 직관적 확신에 의해서 아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론이나 증명, 또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결론은 어떠한 것도 명료성에서나 그 효과에서 그러한 확신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유일한 참된 해석자이라는 칼빈의 견해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하게 성서의 저자는 성령의 도구임을 주장한다.<sup>99)</sup> 성서에 대한 주요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얻어진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예리한 영적 눈, 또는 사람들의 신임과 같은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이성에 입각하여 증거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며 그 이름에 전 세계가 순종하도록 한다<sup>100)</sup>고 말하므로 성서 저자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직관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판단을 초월하는 확실성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칼빈은 아주 명백하게 이 직각적 확신을 다음과 같이 생생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sup>101)</sup>고 말한다.

---

99)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97.

100) 사무엘 던, 「요한칼빈의 신학진수」, 15.

이 확신의 상태는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각에 의해서 얻게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식, 즉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성으로 의해서 도달할 수 없는 확신인 최고의 이성과 일치한 직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의식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심어지고 그 판단도 역시 직접적이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영적 인간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칼빈의 유명한 성령의 증거 교리이다.

---

101)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50.

## V. 결 론

### 1. 요약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서를 중요시 하면서도 성서보다는 전통과 교황을 더욱 중요시했다. 이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 성서보다는 전해오는 전승, 저술 등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었다. 성서에서는 자신들의 약점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성서 밖에서 유리한 것들을 찾게 되었다. 그것들은 외경서, 교부들의 저작, 교회회의 선언들과 교령들이 교회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전통으로 굳어졌다.

더 나아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일반 백성들이 성서를 읽을 수 없도록 금서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유는 자신들의 해석 없이 읽을 때 유익보다는 더 많은 악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이토록 백성들로 하여금 성서로부터 눈멀게 하였고 온갖 전통을 만들어가며 백성을 교회의 틀 속에 가두고, 통제하고, 착취하였다.

예배의 중심인 말씀에 의한 설교보다 형식을 중시한 미사로 집행하므로 성도의 개인 신앙보다 행함 자체에 의미를 두어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였다. 육과 영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였다. 유아세례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교회의 틀 속에 가두었고, 견신으로 보다 깊숙이 교회 안으로 끌어드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고해를 통해서 백성의 사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를 이용하여 백성을 그들의 권한 하에 두었고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혼인도 성사라 하여 통제하였고, 성체미사는 화체설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희생이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듯 모든 부분에서 진리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통제에 의한 두려움에 떠는 삶으로 전락시켰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신도에게도 구원의 확신대신 연옥에 간다고 하여 죽은 후에까지 놓아주지 않고 후손에게 얽어매었다. 또한 성자를 숭배하게 함으로 산자보다는 죽은 자의 도움을 바라는 이방종교의 요소를 끌어 들

였다. 마리아를 성자의 최상위로 숭배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까지 강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심판자로 묘사하고 마리아가 그 노여움을 풀어 준다고 하여 우상숭배로 이끌었다.

또한 공로의 보화를 이용하여 면죄부를 팔았다. 결과적으로 구원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신앙, 믿음은 없어지고 돈이 군림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모든 악행과 타락과 음모와 모반이 있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멀어졌기에 본래로의 회귀가 간절히 요구되었다. 성서로의 돌아감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종교개혁이 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루터는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교육열에 힘입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만스펠트 초등학교에서 문법, 논리, 수사학과 라틴어를 배웠다. 마그테부르크에 있는 공동 형제단이 운영하는 경건학교에 입학하여 성서를 많이 읽게 되었고 성가도 많이 배웠다. 아이제나에서는 라틴어를 완전히 습득하였고 웅변, 시문, 수사학에 있어서 발군의 성적을 올렸다. 법률가로 돈과 명예를 얻기를 바란 부모의 권유로 에르프르트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철학을 접하였다.

이렇듯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영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도원의 방침에 의해 성서를 열심히 읽었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며, 모든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중세 철학에 대하여 많이 연구 하였고, 로마 여행을 통하여 영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와 영적투쟁을 계속한 결과 성서를 통하여 영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확인하였고, 그 희생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이 엄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모든 전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성서 이해에 있어서 루터는 오직 성서라는 원리를 주창하였다. 그 성서의 결론은 모두 그리스도로 집중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으로 겸손해진 인간을 높여 준다고 설명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함으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과 통일성을 설명했다. 또한 성서의 해석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해석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누구나 접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서의 정경성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칼빈은 근면과 노력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던 부모의 보살핌과 높은 학구열에 힘입어 많은 교육을 받았다. 파리에 있는 몽타그대학에 입학하여 코디에 교수로부터 라틴어를 충분히 습득하였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성직자회와 말썽이 있는 칼빈의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 대신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올래안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문주의를 접하였다. 왕실대학에서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칼빈은 법학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칼빈은 전부터 친교해 오던 코프를 만나게 되었고, 코프의 파리대학 학장 취임사 문제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칼빈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 로마 교회 전선에 서게 되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렐의 간청으로 제네바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고 엄격한 개혁으로 인한 반대로 칼빈은 추방당하였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 3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다시 제네바에 초빙 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 질서, 훈련의 3대 목표를 내걸고 제네바시를 복음주의 도시로 만들게 되었다. 칼빈은 대학을 건설하여 제네바를 정신적으로 통일 시키고 동시에 개혁사업의 기반을 견고케 하였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붕기하고 있는 개혁운동의 통일전선을 건설하는데 노력했다.

칼빈은 성서 이해에 있어 인간은 종교적 피조물이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의식을 심어 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특별 계시로서 성서를 주셨다고 설명했다. 즉 성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특별 계시의 문서라고 했다. 또한 성서는 구원 받게 하는 수단이며 진리의 기준이라 했다. 이 성서는 성령의 결정적인 감화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인간은 단지 도구이고 성령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며, 교회의 필요를 잘 섬기도록 형성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교부들이나 교회회의 또는 일반 전통이 성서와 배치 될 때는 성서가 옳고 나머지는 모두 그릇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성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게 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임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성서의 진리를 입증 시키는 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의식이라 설명했다.

## 2. 제 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암울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성서를 통하여 실상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성서를 더욱 열심히 연구한 결과 진리를 재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 업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루터와 칼빈 모두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진리의 재발견에 최선을 다했지만, 루터는 학문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칼빈은 실천 쪽에 더 많이 관여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학문과 실천이 합해져 대과업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상황은 종교개혁 정신이 잊혀져가고 의미가 상실된 채 종교개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성서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귀중한 신앙을 되찾아 오는 종교개혁이 이루어 졌는데 요즈음은 또 다시 성서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인 설교 말씀이 성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즈음 설교가 성서에서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설교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서에서 설교자 자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다. 또한 성서를 열심히 읽고, 신학서적, 주석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설교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남의 설교를 복사하여 설교함으로 설교자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 또 본문 말씀에서 떠난 설교자의 사상, 경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종교수필, 교양강좌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설교의 내용이 설교자의 삶과 궤리

현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성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 하고, 삶으로 재해석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가 목회 수단과 방편으로 활용되어 설교자 개인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방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경우는 성서에 대한 열심과 신학과 성서주석 등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지키는 것조차 못한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목숨을 걸고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 루터와 칼빈의 성서 이해와 같이 성서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한다.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e),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ede),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a Grolia)을 위하여 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발전시켜야한다.

## 참 고 문 헌

### < 국내 서적 >

- 김기련. 「종교개혁서」.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동진. 「루터를 생각하며」.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6.
- 김석년. 「21세기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김성식. 「루터」. 서울: 지문각, 1969.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7.
- 김수학. 「개혁과 역사신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6.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 김주한. 「마르틴루터의 삶과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춘배. 「칼빈의 모습」.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0.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3.
- 김해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김홍기. 「종교개혁사」. 서울: 지와 사랑, 2004.
-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라이온사편. 「교회사 핸드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박명곤. 「기독교신앙위인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박정신. 「한국 기독교 읽기」. 서울: 다락방, 2004.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생명의 말씀사. 「칼빈주석의 정수」. 서울: 세신문화사, 1994.
- . 「기독교 강의 상」. 서울: 세신문화사, 1994.
- . 「기독교 강의 중」. 서울: 세신문화사, 1994.
- 송락원. 「교회사」. 서울: 이건설, 1981.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성주. 「마르틴루터의 신학」. 서울: 성지원, 1988.

-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칼빈 : 생애와 사상」. 충남: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이형기. 「간추린세계교회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전호진.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7.
- 정수영. 「새 교회사」. 서울: 규장문화사, 1991.
-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 지원용. 「루터의 사상과 진수」. 서울: 킨콜디아사, 1986.  
— .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킨콜디아사, 1965.  
— . 「말틴 루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0.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기독교강의 다이제스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8.
-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번역 서적 >

- 로버트 M.그랜트. 「성성해석의 역사」. 이상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 로레인 뵈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이송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랄프우드로우.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안금영역. 서울: 노아와방주, 1997.
- 릭 존스외. 「천주교가 기독교와 다른 서른 일곱가지 이유」. 정동수, 박노찬역.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샘, 1997.
- A.E.맥그래스. 「종교개혁 사상입문」. 박종숙역. 서울: 성광문화사, 2002.
- R.H.Bainton. 「정통교회사」. 김인철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1981.
- 벤자민 B. 윌필드. 「칼빈·루터·어거스틴」. 칼빈주의연구원편역. 서울: 기

독교문화사, 1993.

벵크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7.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회, 1985.

존칼빈의 3인. 「칼빈의 성경관」. 풍만출판사편집주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6.

칼 하인츠 츠어 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 홍지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W.G. 쾨멜. 「신약정경개론」. 박익수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토마스 M. 린제이. 「종교개혁사(1)」. 이형기 차종순역. 서울: 한국장로  
교출판사, 1996.

튜더 존즈. 「기독교개혁사」. 김재영역. 서울: 종합선교-나침반사, 1990.

< 논문 >

곽선희.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 「교회와신학」 4집(1971): 168-187.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1998): 105-118.